

최근 종영 MBC '이별이 떠났다'서 모성에 열연 채시라

# “한 여자의 성장기였죠”

3년만에 드라마 복귀 눈길 ... “영화에 도전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모성에 초점을 맞췄다가보다는 ‘여자’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MBC TV 주말극 ‘이별이 떠났다’에서 서영희로 열연한 배우 채시라(50)는 이번 작품을 ‘한 여자의 성장기’로 정의했다.

7일 서울 청담동 한 카페에서 만난 채시라는 드라마가 종영한 데 대해 “24부도 짧게 느껴지는데 20부는 더 빨리 지나갔다. 그런데 그 안에 밀집된 연기의 농도는 짙었기에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처음에 캐릭터 느낌을 잡기 위해 소재원 작가님의 원작, 웹소설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대본을 날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끝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작품을 마친 시점에서 느끼는 건 ‘여자 대(대) 여자’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영화도 요즘 시대에 필요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시대마다 여성상이 다르고 엄마도 조금씩 변하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요.”

채시라는 남편의 불륜 후 ‘살기 위해’ 자신을 3년간 집에 가둬다가 정효(조보아 분)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한 영화의 내면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묘사했다.

채시라는 “처음에는 영화를 이해 못 할 사람도 있겠다 생각했다”면서도 “약자가 돼버린 영화가 누구보다 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보다 약한 정효를 만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보충해 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게 와 닿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화가 3년간 갇혀 살다가 정효를 만나면서 사람 간 주고받는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후에 한 번 더 자신을 가졌을 때는 길게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왔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나를 꺼내주지 않으니 스스로 나가서 사람에게 다가가야 했다”고 덧붙였다.

채시라는 마지막에 최불암과 함께한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최불암은 최종회에 영화 아버지로 특별출연해 작품을 빛냈다.

“21년 전 ‘미망’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로 만났을

때 느끼 그대로였죠. 선생님과 평상에서 대화를 나누던 게 참 좋았어요. 눈물 쏟던 것도 기억나고요. 보자마자 ‘애들 많이 컸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설렘, 기쁨이 서로 같았을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함께 있었는데 선생님을 본 것 자체로 정말 좋았어요.”

그는 스물세 살 차이 조보아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호흡은 많이 맞춰보면 맞춰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먼저 보아에게 제안을 많이 했고, 보아가 그걸 진심으로 좋아해 줘서 장면마다 완성도도 높아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별이 떠났다’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 이후 채시라가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이었다.

그는 “긴장은 웬만하면 안 하려 한다. 모든 게 힘을 빼야 잘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화는 모든 감정을 가진 캐릭터라 더 그랬다”며 “이번에 슬립드 입어 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다. 정효인 씨가 ‘깜빡(깜짝 놀람)했다’고 하더라”고 웃었다.

그는 그러면서 “‘힐링 드라마’로 기억되길 바랐는데 그 부분은 좀 이루지 않았나 싶다”며 “남편(김태욱)이 웬만하면 칭찬을 잘 안 한다. ‘꽤안네(괜찮네) 하면 아주 좋은 건데 이번에 그랬다’고 덧붙였다.

1984년 CF 모델로 데뷔한 채시라는 하이틴 스타로 인기를 누리다가 ‘여명의 눈동자’(1991-1992) 속 비운의 여인 윤여옥 역을 만나면서 배우로서 완전한 반열에 올랐다. 이후 무수히 많은 작품에서 부자집 아가씨부터 당당한 워킹걸, 팜프파탈, 사극 속 카리스마 있는 여장부까지 카멜레온처럼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왔다.

채시라는 “‘여명의 눈동자’와 더불어 ‘서늘의 달’이 저 채시라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인 걸 보면 참 좋은 작품, 참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다. 최근까지 재방송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배우로서는 참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 남은 과제라 하면 영화가 아닐까 싶다”며 “영화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 채시라



## 레드벨벳 ‘파워 업’ 멜론 등 음원차트 석권

뮤비 유튜브서 520만 건 돌파

그룹 레드벨벳(사진)이 여름 신곡 ‘파워 업’(Power Up)으로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다.

6일 오후 6시 공개된 미니앨범 ‘서머 매직’(Summer Magic)의 타이틀곡 ‘파워 업’은 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멜론, 지니, 벅스, 엠넷 등 4개 차트 1위에 올랐다. 소리바다와 몽키3뮤직에서는 2위, 네이버뮤직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공개 14시간째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520만건을 넘겼으며, 수록곡들 또한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음원 순위 조작 의혹이 인 가운데서도 3주가 가까이 각종 차트 정상을 지킨 손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비롯해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잇 어웨이’(Dance the Night away), 블랙핑크 ‘뚜두뚜두’ 등 쟁쟁한 경쟁곡을 제친 결과다.

‘파워 업’은 통통 튀는 8비트 게임 소스와 귀여운 후크(후렴구)가 매력적인 업템포 팝 댄스곡이다. 신나게 놀고 에너지를 얻어야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다는 가사에 여름의 흥겨움이 고스란히 담겼다.

/연합뉴스



◀ 최수종

## 최수종, 6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KBS 2TV ‘하나뿐인 내편’ 출연 ... 유이와 호흡

배우 최수종이 KBS 2TV 새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으로 6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7일 최수종 측에 따르면 그는 ‘같이 살래요’ 후속으로 오는 9월 15일 처음 방송하는 ‘하나뿐인 내편’에 출연하기로 하고 촬영을 준비 중이다.

최수종은 2016년 KBS 1TV 중편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외하면 ‘대왕의 꿈’(2011-2012) 이후 6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한다.

그는 이번에도 단란(유이 분)의 아버지 강수일 역을 맡아 부성애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수종은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지만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는 강수일이라는 인물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며 “캐릭터가 지닌 진정성을 바탕으로 많은 분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트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시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간(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시사기획 창(재)	30 속보이는 TV 인사이트(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45 UHD 숨터(재)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즈 동물교실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섹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여름방학 특선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30 여름특선 만화 <번신자랑자 또봇-엄마의 자랑>	00 5 MBC 뉴스 20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건강톡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역사저널 그날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55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30 알라라 뿌우(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스위스 용프라우 마터호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순대>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얼마 깨투리
06:20 세계테마기행(재) <에스토니아에 반할지도 3부 섬마을 다이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1~5
07:30 꼬마버스 타요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30 미니특급 X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초이슈
08:45 알라라 뿌우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09:00 얼마 깨투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여름,오감기행 3부 후각기행,그리운 어머니 내음>
09:30 원더볼츠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우리가족 거리 춤하기 - 부모성적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극한직업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음 6월 27일 壬申)

<p>36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 하는 것이 좋다. 48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겠지만 일시적이다. 60년생 냉철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안이 필요하다. 72년생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84년생 방심한다면 일순간에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54, 39</p>	<p>42년생 가벼운 언행이 사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54년생 패도난마 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66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78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선택하자. 90년생 연잎은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0, 72</p>
<p>37년생 소중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49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61년생 뜻을 굽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때다. 73년생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유익함이 보인다. 85년생 숙고해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86</p>	<p>43년생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55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67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79년생 생애는 아니 되는 법이니 무리 없는 양상으로 이끌어야 한다. 91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2, 58</p>
<p>38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50년생 마음에 드는 쪽으로 택하면 무방하다. 62년생 조만간에 곧 결정이 날 것임에 틀림없다. 74년생 타산지식으로 삼는다면 그만이다. 86년생 영원한 비밀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4, 78</p>	<p>44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68년생 한숨을 쉬 일일 생길 것이다. 80년생 순종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92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63</p>
<p>39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51년생 부드러운 감성을 능히 제어하는 법이다. 63년생 기본에 충실 한다면 큰 문제는 없었다. 75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87년생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불편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74, 46</p>	<p>45년생 목적과 관련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57년생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69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것까지는 없다. 81년생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니라. 93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92, 47</p>
<p>40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52년생 정확해야 뒤달이 없을 것이다. 64년생 결정은 속히 하되 실행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76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 하겠다. 88년생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리라. 행운의 숫자 : 68, 40</p>	<p>34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46년생 김홍이 흔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58년생 중용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관찰다. 70년생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느니라. 82년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48, 13</p>
<p>41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53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65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곳이 보인다. 77년생 시기상조 이기는 하지만 관찰다. 89년생 선후를 잘 가리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95, 51</p>	<p>35년생 절제 속에서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47년생 번복될 수도 있는 구도여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59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길 말아야한다. 71년생 순조롭게 펼쳐지겠다. 83년생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 행운의 숫자 : 67, 3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항영” ☎010-9790-8237